

통합을 이끈 링컨의 설득과 수사

- 〈게티즈버그 연설〉을 중심으로 -

I. 남북전쟁 당시의 시대 상황

II. 링컨이 처했던 설득 과업

III. 통합을 이끈 설득과 수사

1. 사전설득(Pre-persuasion) 전략의 사용
2. 양립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의 해결
3. 선조들과 전사자들의 공신력 활용
4. 성경의 활용

IV. 맺음말

통합을 이끈 링컨의 설득과 수사

- 〈게티즈버그 연설〉을 중심으로 -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은 1860년 40%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로 미 대통령에 당선되어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대립하던 나라를 이끌어야 했다.¹⁾ 당시 미국은 남부와 북부 사이에 노예 제도를 비롯한 생활양식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해 갈등이 심했다. 그러던 중 그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지 한 달 후인 1861년 4월, 남부군이 북부군의 섬터 요새(Fort Sumter)를 공격한 일을 계기로 남북전쟁(Civil War, 1861-1865)이 발발하기에 이른다. 남북전쟁에서 가장 처참했던 전투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벌어진 게티즈버그 전투(1863년 7월 1~3일)로, 양측이 모두 5만 명 이상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전사자들의 시신을 매장할 묘지를 조성하면서 이들을 기리는 헌정식을 마련하였다. 링컨은 이 헌정식에 초대되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바로 〈게티즈버그 연설〉이다.

양 진영은 처참했던 이 전투에 대한 광범위한 핑계거리를 준비해야만 했다. 전투가 끝난 직후부터, 남부와 북부는 제각기 전투의 의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했다.²⁾ 링컨이 북부에 지지기반을 둔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자 남북전쟁 당시 북부 연방의 총사령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가 북부에 유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전투의 의미를 북부에 유리하도록 해석하기 위해 흔히 취할 수 있는 전략 -이후에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 남부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등- 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연설은 그의 지지기반인 북부뿐 아니라 갈등 관계에 있는 남부까지도 향해 있었다. 이는 당시 그가 남부와 북부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 나라를 유지시키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1) 이 문단은 Pratkanis, A. R. and E. Aronson, 2005, 『프로파간다 시대의 설득전략』, 윤선길·정기현·최환진·문철수 역(커뮤니케이션북스), 48쪽을 인용 및 참조했다.

2) 이 문단은 Wills, G., 2004, 『링컨의 연설』, 권혁 역(돋을새김), 15쪽, 42쪽을 인용 및 참조했다.

이 글에서는 게티즈버그 묘지 헌정식에서 링컨이 직면했던 설득 과업에 대해 살펴보고,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할 때 적절한 설득과 수사는 무엇인지 그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전쟁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 남북전쟁 당시의 시대 상황

당시 남북전쟁이 발발한 원인에 대해 단순히 노예제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³⁾ 물론 노예제가 큰 쟁점이긴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노예제로 대변되는 남과 북의 생활 방식 차이, 특히 경제 구조의 근본적 차이였다. 이미 17세기부터 남부는 전원적이며 농업 위주였고 북부는 도시적이고 공업 위주였다. 초기에는 이 둘이 그런 대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가 커지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북부의 생활양식이 남부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남부의 입지는 좁아져 갔다. 남부는 노예제에 기반을 둔 그들의 사회체제를 지키고자 했지만 북부는 노예제에 막혀 싼 값으로 공장 노동자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한 미연방의회는 북부에 유리한 법령을 통과시켰고 철도의 대부분은 북부에만 건설되었다. 이민은 기반잡기가 비교적 쉬운 북부에 집중되었고 노예들도 북부나 서부로 도망쳐 나갔다.

이런 사정으로 1850년대 들어 남부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래서 1860년의 대통령 선거는 남부에 사활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의회는 이미 북부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므로 남부 출신, 아니면 최소한 남부에 동정적인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고 남부인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남부에 동정적인 민주당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단일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사이에, 북부에 적(籍)을 둔 공화당은 링컨을 후보로 내세워 바람몰이를 했다. 그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노예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남부인들의 우려 속에 치러진 1860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링컨의 승리였다. 링컨은 남부에서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 북부 주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획득했다. 연방은 그의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두 쪽으로 나뉘었다.

3) 당시의 시대 상황에 관한 내용은 유종선, 2012, 『미국사 다이제스트 100』(가람기획), Davis, K. C., 2010, 『미국사 이야기』, 이충호 역(푸른숲), 132-166쪽을 인용 및 참조했다.

남부는 링컨의 당선이 확정되자 연방에서 탈퇴하는 길을 택했다. 남부 사람들은 각주가 연방 정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연방을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북부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다. 연방을 탈퇴한 주들은 미연합국(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독립 국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미국은 공식적으로 분열되었다. 남은 것은 남부 연합과 북부 연방 간의 전쟁이었다. 게티즈버그 전투는 이러한 남북전쟁의 승패를 가른 전투로 평가되며 북부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남북전쟁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승리한 북부군 역시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남부와 북부 모두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였다.

II. 링컨이 처했던 설득 과업

당시의 피폐한 분위기를 달래줄 게티즈버그 묘지 헌정식에서 링컨이 처했던 설득 과업은 다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⁴⁾ 그는 게티즈버그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규정할 수 있어야 했고 자신이 몇 달 전 취한 행동을 정당화해야 했는데, 그 행동은 노예해방선언⁵⁾을 통해 남부의 노예들을 해방시킨 일이었다. 이 선언은 링컨의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예제도가 남부의 주를 벗어나 확대되지 않도록 봉쇄하던 것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북부 연방을 보존하면서도 반란군(남부군)이 국가에 통합되는 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링컨이 사용할 수 있는 수사(修辭)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전쟁을 정당화시킬 때는 잔혹한 양상을 이야기한다. 이 경우에는 노예들의 고통이나 살육 사례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남부 반군을 비방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략은 남부 반군이 전쟁 이후에 북부 연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자칫 방해가 될 수 있었다.

4) 이 문단은 Pratkanis, A. R. and E. Aronson(2005), 53-54쪽을 인용 및 참조했다.

5) 링컨의 노예해방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은 1863년 1월 1일부터 단행됐다. “미 연방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주와 특정 지역의 노예는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선언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이 선언은 주로 남부 연합의 노예제만 폐지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적 속임수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강준만, 2010, 『미국사 산책 3』(인물과사상사), 106-108쪽].

실제로 북부군의 총사령관인 그가 남부군을 비방하지 않은 것은 그날 헌정식에서 이루어졌던 다른 이의 연설과 비교해 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헌정식 당일 링컨의 연설 이외에 에드워드 에버렛(Edward Everett)이라는 인물의 연설도 같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로 더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에드워드 에버렛의 연설을 게티즈버그 연설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⁶⁾ 책 『링컨의 연설(Lincoln at Gettysburg)』로 풀리처상 논픽션 부문을 수상한 게리 윌스(Gary Wills)에 따르면 링컨의 헌사는 그 날 행사의 ‘짙막한 언급’ 정도로 예정돼 있었다.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의 공화당 출신 주지사인 앤드루 커틴(Andrew Curtin)은 부유한 은행가이자 게티즈버그 주민이었던 데이비드 윌스(David Wills)라는 인물을 책임자로 지명하여 게티즈버그 전투 이후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 시신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의 업무를 맡겼다.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윌스는 게티즈버그의 오염된 분위기를 정화해줄 훌륭한 연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당대의 유명한 문장가에게 맡기고자 했다. 학자이며 명문대학 출신 외교관이던 에버렛은 당시 대중연설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사람 중 하나로, 윌스에게 에버렛은 묘지의 성역화라는 계획에 필요한 존재였다.

윌스는 에버렛에게 초청장을 발송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국가적인 행사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연방정부의 각료들과 그 외의 유명 인사들에게 의례적인 초청장을 발송했다. 링컨도 뒤늦게 초청을 받았는데 그가 추모하려는 전사자들의 총사령관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열의도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헌정식이 어느 일개 주의 행사였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참여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그날의 헌정식 식순이다.

음악 : 버그필드 밴드 (Music, by BIRGFIELD's Band.)

축원 : T. H. 스톡턴 (Prayer, by REV. T. H. STOCKTON, D.D.)

음악 : 해군 군악대 (Music, by the Marine Band.)

추도 연설 : 에드워드 에버렛 (Oration, by Hon. EDWARD EVERETT.)

음악 : B. B. 프렌치가 작곡한 찬가 (Music, Hymn composed by B. B. FRENCH, Esq.)

헌사 : 미합중국 대통령 (Dedicatory Remarks,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장송가 : 행사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합창단 (Dirge, sung by Choir selected for the occasion.)

감사 기도 : H. L. 바우어 (Benediction, by REV. H. L. BAUGHER, D.D.)

6) 링컨과 에버렛의 연설을 비교하여 설명한 이하 내용은 Wills, G.(2004), 35-39쪽을 인용했다.

이 식순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예정돼 있는 연설은 단 하나밖에 없다. 링컨의 짝막한 언급은 헌정식을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로 규정하기 위해 만든 순서에 가까웠다. 그러나 링컨은 오히려 그 행사를 기회로 활용하려 했다. 링컨은 대부분의 주지사들이 그 헌정식에 직접 참석하거나 핵심 참모들을 파견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경호원이자 그 행사의 주요 의전책임자로 활동했던 워드 라몬(Ward Lamon)은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대규모 행사가 될 것임을 링컨에게 미리 일러두었다. 이런 행사는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수집하기에 안성맞춤인 전형적인 정치적 무대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링컨이 연설 중에 특정한 개인이나 명단에 기록되어 있던 주요 장교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에버렛이 자신의 헌사를 통해 일일이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에버렛의 연설 중 남부군을 비난하는 내용은 반정부 성향 신문들의 비판을 받았는데 링컨의 연설에는 이러한 비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연설문을 어떻게 구성했을까. 아래에서 그의 연설 원문⁷⁾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we can not consecrate-we can not hallow-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7) 원문은 Wills, G.(2004), 377쪽에서, 번역은 Pratkanis, A. R. and E. Aronson(2005), 68쪽에서 인용했다.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팔십 하고도 칠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되고, 만인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건국이념 아래 봉헌된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 위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으며, 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봉헌된 이 나라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를 시험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그 큰 전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이 싸움터의 한 곳을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볼 때,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미천한 능력으로서는 아무 것도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한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이 이곳에서 싸워 고결하게 진척시킨 그 미완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바쳐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대과업을 완수하는 일에 여기 우리들 자신을 헌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했던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III. 통합을 이끈 설득과 수사⁸⁾

1. 사전설득(Pre-persuasion) 전략의 사용

성공적인 설득이 되기 위해서는 표적으로 삼은 청중들이 어떤 이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설득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링컨은 이러한 전략을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전략은 바로 상황을 규정하고 설득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전설득 전략이다. 만약 이 전략을 성공시킨다면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 단계에서 설정할 수 있고, 설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도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사전설득 전략의 뿌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합적인 설득 이론을 최초로 발전시켰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 BC 384-BC 322)는 설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아테크노이(atelchnoi)를 들었다. 이는 ‘화자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사실이나 사건’ 등을 말하는데, 법정을 예로 들면 법 조항, 계약 내용, 증인의 증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설득 전략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어서 설득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요인들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인의 공신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로마의 법률가이자 수사학자였던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BC 43)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크노이 개념을 스타티스(statis) 이론(이슈의 상태)으로 더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전설득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연설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관점에 가장 유리하도록 상황을 규정하고 이슈를 구성하는 것이다.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이러한 사전설득 전략, 즉 사람들이 설득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주제를 규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주요 이슈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연설의 기막힌 묘수였다. 즉 노예제도, 노예해방선언, 노예들의 처리 방안, 또는 전쟁에서 연방이 승리를 얻기 위해

8) 이 부분의 내용은 Pratkanis, A. R. and E. Aronson(2005), 48-67쪽을 인용 및 참조했다.

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법의 연설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보다 링컨은 일반적인 언어를 이용하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이슈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링컨은 죽은 사람들의 ‘미완의 과업’을 완수하고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알리는 일에 국가가 나서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또한 흥미롭게도 링컨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의 양쪽 진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미국인을 북부 대 남부, 흑인 대 백인, 또는 노예 대 자유인 등으로 구분하지도 않았다. 대신 링컨은 모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으며, 심지어는 반기를 든 남부인들도 민주정치와 자유의 구현을 위한 위대한 실험에 참여한 특별한 사람들로 표현했을 뿐 분노나 비난의 대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로써 그는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이 높은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편에 속하든 누구나 연설의 주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2. 양립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의 해결

링컨의 연설에서 주목할 또 다른 효과적인 설득전략은 연설문을 시작하는 다음 첫 여섯 단어에 담겨있다. “팔십 하고도 칠 년 전(Four scores and seven years ago).” 링컨의 이 연설이 1863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팔십 하고도 칠 년 전’은 1776년을 가리킨다. 이 여섯 단어를 통해 링컨은 미국이 1789년 헌법이 인준됨으로써 탄생한 것이 아니라, 1776년 독립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이미 탄생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킨 셈이다. 현재 많은 수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탄생을 1789년이 아닌 1776년으로 수용하고 있다. 물론 이 연설이 미국의 건국 시점을 논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노예 제도 지지자들은 미국 헌법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당시 헌법이 노예 제도를 불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의 명제를 중시했다.⁹⁾ 링컨은 노예 제도 폐지, 노예해방선언, 전쟁 등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서도 독립선언과 그에 수반되는 평등 원칙과 함께 국가가 탄생한 것을 보여주는 여섯 단어를 사용하여 노예 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했던 것이다.

9) 그러나 일각에선 독립선언서 작성 당시 이 문장의 ‘모든 사람’에 여성과 인디언, 흑인도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누구도 그 답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Davis, K. C.(2010), 85쪽].

그리고 링컨은 ‘팔십 하고도 칠 년 전’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연설 문구에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모순을 짚어냈다. 링컨 연구가 게리 월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 미국인들은 독립선언을 경건하게 생각하였다(호의적인 편견). 그러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에 대하여도 역시 호의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다. 링컨은 두 가지 편견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절묘한 주장을 한 것이다.” 그 당시에 이 모순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에서 부여한 자치권에 따라 노예 제도를 원하는 주가 있으면 그것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링컨조차도 한때는 이 절충안을 수용했지만, 게티즈버그에서 그는 이 생각을 버렸다. 그는 “만인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건국이념 아래 봉헌된 새로운 나라”라는 연설의 도입에서 청중들이 그 동안 자신들이 위선적이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청중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편견을 직시하게 하고 ‘그렇게 잉태되고 봉헌된 이 나라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음을 알게 했다.

그러나 당시 시카고 『타임스』는 링컨을 향해,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헌법 조문을 인용하면서 그가 미국의 헌법을 배신하고 있으며 바로 그 기본적인 법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¹⁰⁾ 미국의 보수주의자 윌무어 켄들(Willmoore Kendall, 1909-1968)이나 브래드퍼드(M. E. Bradford, 1934-1993) 등은 이러한 지적에 동조하여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헌법을 뒤집어엎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과거 헌법’에 대한 링컨의 절묘한 공격을 담고 있는 그의 신화화된 〈게티즈버그 연설〉을 비난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링컨의 연설에는 눈여겨볼 만한 지적 내용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수사적인 비평을 빌려 주장한다. 즉 그의 연설 속 일련의 생각들이 진부하리만큼 평범하여 그의 연설은 그저 일반적인 장례식 추도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켄들이나 시카고 『타임스』의 편집진들은 링컨이 시도해낸 일의 담대함을 한편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링컨과 남북전쟁 이후에 헌법을 개정한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원칙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새로운 국가 설립의 조향을 만들려 시도한 것이다.”¹¹⁾

10) 이 문단과 다음 문단의 내용은 Wills, G.(2004), 43-44쪽을 인용했다.

11) Kendall, W., 1971, *Willmoore Kendall Contra Mundum*, N. D. Kendall (ed.) (Arlington House), p. 69 {Wills, G.(2004), 44쪽}.

노예제를 바라보는 남부와 북부의 상이한 시각을 짚어내는 것은 당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3. 선조들과 전사자들의 공신력 활용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득자는 권위 또는 신뢰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쉽게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속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신력을 세우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링컨은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청중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반기를 든 남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북부인들 중에서도 링컨의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중이 설득 메시지의 정보원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가능했다.

그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연설의 설득 메시지 정보원으로 채택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미국을 건국한 선조들과 자유라는 건국이념 속에 세워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인들을 메시지 정보원으로 이용한 것이다. 링컨은 그들을 용감하고 명예롭다고 칭송했으며, 건국이념을 몸소 실천한 그들의 고결한 뜻을 기림으로써 공신력을 만들었던 것이다. 여기서 정보원을 바꾼 것이 설득력을 어떻게 강화시켰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온 나라가 단결해야 한다고 링컨이 자신의 이름으로 호소했다면, 아마 그에게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다 그의 연설을 불신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설립한 선조들과 그들의 비전을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링컨은 자신의 연설이 지니는 공신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청중을 아우를 수 있었다.

4. 성경의 활용

사람들을 설득할 때 설득자는 그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나 정서에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링컨이 쉽지 않은 수사적 과업에 직면했음에도 그의 연설이 남부까지도 포섭할 수 있을만한 연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공유하던 가치관에 해당하는 ‘성경’을 이용할 줄 알았던 그의 능력을 꼽을 수 있다. 〈게티즈버그 연설〉에는 오늘날 흔히 활용되는 설득 전략들이 이용되지 않았

는데, 예를 들면 연설문 어디에도 전쟁의 암울한 이미지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 등이 없었던 것이다. 대신 링컨은 연설 전반에 걸쳐 그의 메시지를 ‘잉태’, ‘탄생’, ‘헌납’, ‘새로운 나라의 봉헌’과 같은 성경의 표현들로 구성했다. 당시 19세기 청중들에게, 성경 구절로 잘 포장된 이 메시지는 미국 민주주의에 특별하고 숭고한 성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특별한 국가에 등을 돌리는 것은 신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렇듯 그는 당시 보다 많은 청중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종교적 측면에서 그들의 공통성을 찾아 호소했다.¹²⁾

IV. 맺음말

지금까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속 설득과 수사를 살펴보았다. 그의 연설은 당시에 벌어진 게티즈버그 전투를 추상의 단계로 끌어올려 설득 메시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또한 독립선언 및 그에 수반되는 평등 원칙과 함께 국가가 탄생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링컨은 선조들과 전사자들의 이름 아래 남부와 북부가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며, 성경 구절의 활용을 통해 미국인의 공통적인 정서를 연설의 밑바탕으로 삼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연설은 같은 날 같은 행사에서 이루어진 다른 이의 연설과 구분되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었다. 링컨은 이 연설에서 남부 혹은 북부 어느 한 쪽에 더 유리하도록 게티즈버그 전투의 의미를 해석하기보다 선조들과 전사자들 모두의 이념과 용기를 찬양하고 나라의 존속을 다짐했다. 이러한 그의 연설은 갈등 상황에서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설득과 수사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2) 이윤지, 2011,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수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 석사학위 논문』, 58쪽.